



보도시점

2026. 5. 14.(목) 06:00

배포

2026. 5. 13.(수) 14:00

5. 14.(목) 석간

중동정세 불안에 따른 식품업계 포장재 수급 애로...정부가 직접 챙긴다

- 현장점검 강화 및 aT에 '애로신고 창구' 통합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중동정세 불안에 따른 식품 포장재 공급 차질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포장재 제조업체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5월 14일(목)부터 식품 관련 단체·협회별로 운영되던 애로신고 창구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로 통합·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 정세불안으로 나프타 등 석유화학계 원료 수급 불안, 국제 물류비 상승 등이 발생하면서 식품 및 외식업계의 포장재 조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라면, 과자, 빵, 음료, 즉석식품 등 주요 가공식품은 필름류, 용기류, 파우치류 등 포장재 사용 비중이 높아 포장재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생산 차질과 원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식품 포장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원료 확보 상황 과 주요 포장재의 생산·납품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특히, 식품기업 공급 차질 여부, 과도한 선구매나 가수요 발생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중이다.

아울러, 그동안 식품 관련 단체와 협회가 개별적으로 운영해온 중동전쟁 관련 애로신고 창구를 5월 14일부터 aT로 일원화하여 운영한다. 이를 통해 협회나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소상공인, 중소·영세 식품기업도 포장재 수급 불안, 납품 지연, 물류비 상승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접수된 애로사항은 aT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취합되어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업계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특정 품목이나 포장재에 공급 차질 우려가 확인될 경우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포장재는 식품 생산과 유통에 반드시 필요한 기반 자재인 만큼, 수급 불안이 식품 가격 인상과 국민 생활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aT 중동전쟁 관련 애로신고센터 통합 운영을 통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중소·영세 식품기업의 현장 애로까지 폭넓게 파악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 | | | | |
|-------|---------------------|-----|-----|-----|----------------|
| 담당 부서 | 식품산업정책관실 푸드테크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유미선 | (044-201-2111) |
| | | 담당자 | 사무관 | 노규진 | (044-201-2123) |